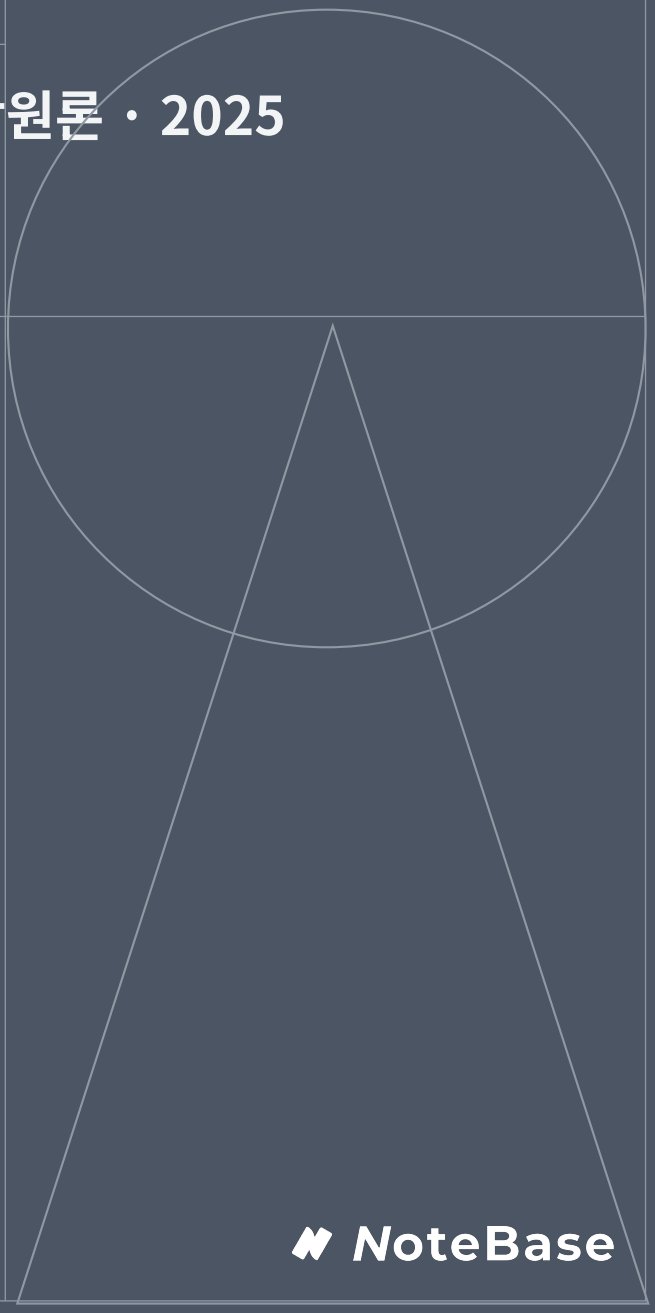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5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5

문 1.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공개시장 국채 매각

② 원/달러 환율 인상

③ 재할인율 인상

④ 지급준비율 인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조작하는 전통적 긴축 통화정책 수단과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 변수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매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키워드는 채권 매매이다.
재할인율: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키워드는 중앙은행 대출금리이다.
지급준비율: 예금 중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보유하게 하는 비율이다. 키워드는 법정지급준비이다.
환율: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키워드는 정책수단이 아니라 시장가격 변수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통화량이 줄어든다. 긴축 통화정책의 대표적 수단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원/달러 환율 인상'을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본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변수이며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환율은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이다.
③ O: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커져 대출 확대가 위축된다. 따라서 긴축 통화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④ O: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신용창조가 억제된다. 따라서 긴축 통화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처럼 환율의 움직임을 정책수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통화정책 수단은 중앙은행이 직접 조정하는 도구이고, 환율은 그 결과로 변할 수 있는 시장변수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정책 문항에서는 먼저 중앙은행이 직접 손댈 수 있는지를 본다. 채권 매매, 정책금리, 지급준비 규제는 수단이고 환율, 물가, 통화량 증감은 대체로 목표나 결과변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긴축 3종은 채권 매각,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이고 환율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변수이다.

NoteBase

문 2. 협의통화(M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시입출식예금

② 요구불예금

③ 정기예금

④ 현금통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협의통화 M1에 포함되는 거래용 통화와 포함되지 않는 저축성 예금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협의통화 M1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처럼 바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동적인 통화이다.
수시입출식예금도 사실상 즉시 인출과 결제가 가능하면 M1 성격을 가진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정해진 저축성 예금이어서 즉시 결제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M1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기준은 저축 여부가 아니라 즉시 결제 가능성과 유동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수시입출식예금은 필요할 때 바로 인출하거나 결제에 연결할 수 있는 예금이므로 M1에 포함된다. 틀린 판단은 'M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수시입출식예금은 M1에 해당한다'이다.
② X.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요구하면 곧바로 지급되는 대표적 결제성 예금이므로 M1에 포함된다. 틀린 판단은 'M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요구불예금은 M1에 해당한다'이다.
③ O. 정기예금은 만기가 정해진 저축성 예금이어서 거래 결제에 바로 쓰는 통화로 보지 않으므로 M1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 고른 선지이다.
④ X. 현금통화는 가장 직접적인 지급수단이므로 M1의 핵심 구성항목이다. 틀린 판단은 'M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현금통화는 M1에 해당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을 모두 예금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주로 묶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예금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즉시 결제 가능한가'를 묻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지표 문제에서는 각 금융자산이 바로 현금처럼 결제에 쓰이는지부터 본다. 즉시 인출과 결제가 가능하면 M1 쪽이고, 만기나 해지 조건이 붙은 저축성 예금이면 M1 바깥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M1은 당장 쓰는 돈, 정기예금은 묶어 둔 돈이다.

NoteBase

문 3.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와 한계소비성향을 가정할 때, 정부가 가계의 세금을 100억 원 환급해 주었다면 소비의 증가량은?

◯ 소비함수: $C = MPC(Y - T)$
◯ 한계소비성향: $MPC = 0.8$
(단, Y는 소득(불변), T는 세금, C는 소비)

① 60억 원
② 80억 원
③ 100억 원
④ 120억 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함수 $C = MPC(Y - T)$에서 세금 환급이 가처분소득을 얼마나 늘리고, 그중 얼마가 소비로 이어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한계소비성향은 $MPC = 0.8$이다.
구해야 할 값: 세금 100억 원 환급 시 소비의 증가량이다.
주의할 조건: Y는 불변이므로 변화는 T의 감소만 반영하면 된다.

사용할 공식

사용할 공식은 $\Delta C = MPC \cdot \Delta(Y - T) = -MPC \cdot \Delta T$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소득 Y가 고정된 상태에서 세금 T만 변할 때 소비 C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세금을 100억 원 환급하면 세금은 100억 원 감소하므로 $\Delta T = -100$억 원이다.
2. 따라서 가처분소득 변화는 $\Delta(Y - T) = -\Delta T = 100$억 원이다.
3. 소비 변화는 $\Delta C = 0.8 \times 100 = 80$억 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소비 증가량은 80억 원이므로 60억 원은 맞지 않는다. 60억 원은 한계소비성향을 주어진 0.8이 아니라 0.6으로 잘못 적용해 $0.6 \times 100 = 60$억 원으로 계산한 값이며, 올바른 $MPC = 0.8$을 쓰면 80억 원이 된다. 틀린 표현은 '소비 증가량이 60억 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소비 증가량은 80억 원이다'이다.
② O: 세금 환급 100억 원은 가처분소득을 100억 원 늘리고, 그중 0.8만큼이 소비로 이어지므로 소비는 80억 원 증가한다.
③ X: 100억 원은 가처분소득 증가분일 뿐 소비 증가분이 아니다. 소비는 그 전부가 아니라 $MPC = 0.8$만큼만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소비 증가량이 100억 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소비 증가량은 80억 원이다'이다.
④ X: 소비 증가량이 120억 원이 되려면 주어진 한계소비성향 0.8보다 큰 비율로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주어진 소비함수와 맞지 않는다. 이 선지는 승수효과나 다른 추가 효과를 잘못 끌어들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소비 증가량이 120억 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소비 증가량은 80억 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 환급액 100억 원을 그대로 소비 증가량으로 보거나, 승수효과를 바로 대입해 1차적인 소비 증가와 총수요 증가를 혼동하기 쉽다. 이 문제는 가계의 소비함수 한 단계만 묻는 문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금 변화가 나오면 먼저 $Y - T$의 변화를 구하고, 그다음 그 변화에 MPC를 곱해 소비 증가량을 계산하면 된다. 조세승수나 총수요 승수 문제인지, 단순한 소비함수 변화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액세 변화에 따른 소비 변화는 '가처분소득 변화 × 한계소비성향'이다.

NoteBase

문 4. 완전경쟁시장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자는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판매하는 상품들은 품질에 있어서 이질적이다.

③ 모든 경제주체는 시장 현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④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의 핵심 요건인 상품의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완전정보, 가격수용자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시장은 동일한 상품을 매우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이다. 결정 차이축은 상품의 동질성 여부와 개별 경제주체의 가격지배력 유무이다. 키워드는 동질적 상품,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완전정보, 가격수용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낮아 공급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올 수 있다. 이는 초과이윤이 생기면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손실이 지속되면 퇴출이 일어나는 구조와 연결된다.
2번: X. 틀린 부분은 '품질에 있어서 이질적이다'라는 표현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파는 상품이 동질적이어서 소비자가 특정 기업 상품만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공급자가 판매하는 상품들은 품질에 있어서 동질적이다'이다.
3번: O. 완전경쟁의 가정 중 하나는 완전정보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는 가격과 시장 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4번: O.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가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의 '이질적'이 대표적 함정이다. 상품 차별화는 독점적 경쟁이나 과점처럼 불완전경쟁 쪽의 특징인데, 이를 완전경쟁의 조건과 바꾸어 놓으면 쉽게 헷갈릴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시장 문제는 상품이 서로 같은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지, 정보가 완전한지,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을 바꿀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이 네 기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완전경쟁의 요건이 아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은 동질적 상품, 자유진입과 퇴출, 완전정보, 가격수용자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은 임금 경직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②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은 실업률이 0인 상태, 즉 실업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③ 이력현상(hysteresis)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실업률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은 실제 실업 상태를 과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의 주요 개념인 효율임금, 자연실업률, 이력현상, 실망노동자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임금은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며, 그 결과 임금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연실업률은 경기와 무관하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남아 있는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이며, 실업률 0을 뜻하지 않는다.
이력현상은 경기침체로 높아진 실업이 경기회복 뒤에도 이전 수준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실망노동자는 구직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이므로 공식 실업률이 실제 노동시장 부진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효율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산성과 이직방지 효과를 노리는 이론이다. 이런 임금정책은 기업이 임금을 쉽게 낮추지 못하게 하므로 임금 경직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자연실업률은 실업률이 0인 상태"라는 표현이다. 자연실업률은 실업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이다.
③ O: 이력현상은 불황기에 발생한 장기실업, 숙련 저하, 노동시장 이탈 등이 경기회복 후에도 남아 실업률이 이전 수준으로 쉽게 복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④ O: 실망노동자는 일할 의사는 있으나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식 실업률 분모와 분자 계산에서 빠져 실제 체감 실업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먼저 읽지 않으면 ①, ③, ④가 모두 익숙한 설명이라 정답을 놓치기 쉽다. 특히 ②는 "자연"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상적인 무실업 상태로 오해하기 쉬우나, 자연실업률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 문제에서는 먼저 발문 극성을 확인한 뒤, 자연실업률이 0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한다. 이어서 효율임금은 임금 경직성, 이력현상은 경기회복 후에도 남는 실업, 실망노동자는 공식 실업률 과소측정과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연실업률은 0이 아니라 완전고용하의 실업률이고, 효율임금은 임금 경직성, 이력현상은 실업의 지속, 실망노동자는 공식 실업률의 과소측정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6. 표는 어느 경제의 국내 고용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만 명)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4,000	2,500	500	1,000

① 경제활동인구는 2,500만 명이다.

② 실업률은 20%이다.

③ 고용률은 62.5%이다.

④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를 포함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에서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구분해 수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료 읽는 순서

1. 생산가능인구 4,000만 명, 취업자 2,500만 명, 실업자 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을 확인한다.
2.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임을 적용한다.
3. 각 선지의 수치와 정의가 이 기준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므로 2,500만 명이 아니라 3,000만 명이다. 틀린 표현은 '2,500만 명'이며, 올바르게는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이다.

2번: X.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이므로 500÷3,000=1/6, 약 16.7%이다. 틀린 표현은 '20%'이며, 올바르게는 '실업률은 약 16.7%이다'이다.

3번: O.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므로 2,500÷4,000=0.625, 즉 62.5%이다. 표의 취업자 수와 생산가능인구 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4번: X.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하므로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를 포함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실업률의 분모를 생산가능인구로 착각하면 1번과 2번에서 동시에 흔들린다. 4번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용 관련 표가 나오면 먼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포함 관계를 정리한 뒤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순서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실업자이고,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문 7.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느 경제의 (법정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은 0.1이다. 이 경제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00억 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할 때,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국채를 (가)억 원만큼 (나)해야 한다. (단, 민간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저축하며,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

① 100, 매입

② 100, 매각

③ 500, 매입

④ 500, 매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급준비율과 통화승수를 이용해 통화량 1,000억 원 증가에 필요한 본원통화 증가액과 공개시장운영 방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법정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 0.1이다. 민간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든 돈을 요구불예금으로 보유한다.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을 대출하므로 초과지급준비금이 없다. 구해야 할 값은 통화량을 1,000억 원 늘리기 위해 필요한 국채 매입 규모와 공개시장운영의 방향이다.

사용할 공식

통화승수는 현금보유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이 0이므로 $m = \frac{1}{r}$이다. 여기서 $r = 0.1$이므로 $m = 10$이다. 통화량 변화는 $\Delta M = m \times \Delta B$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조건이 현금 누수와 초과지급준비가 없는 단순 예금창조 모형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지급준비율 $r = 0.1$이므로 통화승수는 $m = \frac{1}{0.1} = 10$이다. 2. 통화량을 1,000억 원 늘리려면 $\Delta B = \frac{\Delta M}{m} = \frac{1,000}{10} = 100$이므로 본원통화를 100억 원 늘려야 한다. 3.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리는 공개시장운영은 국채 매입이므로 (가)는 100, (나)는 매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필요한 본원통화 증가는 100억 원이고, 통화량을 늘리려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100, 매입의 연결이 맞다.
② X: 100억 원은 맞지만 매각이 틀리다. 국채 매각은 시중 자금을 흡수해 본원통화와 통화량을 줄인다. 틀린 표현은 '매각'이며, 올바르게는 '매입'이다.
③ X: 매입 방향은 맞지만 500억 원이 틀리다. 500억 원을 매입하면 통화량은 $10 \times 500 = 5{,}000$억 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500'이며, 올바르게는 '100'이다.
④ X: 500억 원도 틀리고 매각도 틀리다. 500억 원 매각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5,000억 원 줄이는 방향이다. 틀린 표현은 '500, 매각'이며, 올바르게는 '100, 매입'이다.

오답 포인트

지급준비율 0.1을 그대로 필요 매입액으로 보거나, 통화량 증가와 본원통화 증가를 같은 크기로 보는 실수가 잦다. 또한 공개시장운영에서 매입은 통화공급 확대, 매각은 통화공급 축소라는 방향을 반대로 잡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보유와 초과지급준비가 없으면 먼저 통화승수 $m = \frac{1}{r}$를 구한 뒤 $\Delta B = \frac{\Delta M}{m}$로 필요한 본원통화 증가액을 계산한다. 그다음 통화량을 늘리는지 줄이는지에 따라 공개시장운영의 방향을 매입 또는 매각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현금 누수와 초과지급준비가 없으면 통화승수는 $1/r$, 통화량 확대는 국채 매입이다.

NoteBase

문 8. 등량곡선상의 한 점이 동일한 등량곡선상의 다른 한 점으로 이동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① 생산물의 양이 변화하였다.

② 생산요소의 한계기술대체율이 변화하였다.

③ 투입되는 특정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이 변화하였다.

④ 생산과정에서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변화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동일한 등량곡선 위의 점 이동이 산출량은 유지한 채 생산요소의 투입조합과 한계기술대체율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등량곡선은 같은 생산량을 만들어 내는 생산요소 조합의 집합이다. 따라서 동일한 등량곡선 위의 두 점은 산출량이 같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말은 한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할수록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동일한 등량곡선 위의 이동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 채 요소조합만 바꾸는 이동이므로 생산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생산물의 양이 변화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생산물의 양은 변하지 않고 생산요소의 조합이 변화하였다'이다.
② O: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곡선상의 위치가 바뀔 때 기울기 절댓값이 달라지므로 생산요소의 한계기술대체율이 변화한다.
③ O: 같은 산출량을 유지하면서 요소투입량이 달라지면 각 점에서의 한계생산물 관계도 달라진다. 특히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생산물의 비율과 연결되므로 점이 바뀌면 특정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도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O: 동일한 등량곡선 위의 다른 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한 요소를 더 쓰고 다른 요소를 덜 쓰는 식으로 투입조합이 바뀌었다는 뜻이므로 생산과정에서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변화하였다.

오답 포인트

등량곡선에서 점이 이동하면 그림상 위치가 달라지므로 산출량도 달라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산출량 변화는 다른 등량곡선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고, 같은 등량곡선 위 이동은 오직 요소배합의 변화만 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등량곡선 문제는 먼저 '같은 곡선인가 다른 곡선인가'를 본다. 같은 곡선이면 산출량은 일정하고, 바뀌는 것은 요소투입 비율과 한계기술대체율이다.

암기 포인트

같은 등량곡선은 같은 산출량, 다른 점은 다른 요소조합이다.

NoteBase

문 9. 소득분배와 관련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0분위분배율의 값이 커지면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② 로렌츠곡선(Lorenz curve)에 따른 소득분배 상태의 평가는 서수적인 성격을 가진다.

③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면 지니계수는 0의 값을 갖는다.

④ 5분위배율은 소득이 상위 20% 또는 하위 20%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배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0분위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5분위배율의 방향과 해석 범위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 소득의 합계를 상위 20% 소득의 합계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 평등하다.
로렌츠곡선은 누적 인구비율과 누적 소득비율의 관계를 그린 곡선으로, 평등선에서 멀수록 불평등하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을 비율화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값이 커질수록 하위계층의 상대적 소득이 커진다. 따라서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불평등하다'이고, 올바르게는 '평등도가 높아진다'이다.

② O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포함관계로 어느 분배가 더 평등한지 순서를 비교하는 데 강점이 있다. 불평등의 크기를 하나의 수치로 바로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므로 서수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③ O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면 완전평등 상태이다. 이때 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도 0이다.

④ O
5분위배율은 상위 20%와 하위 20%만 비교하는 지표이므로 중간 60%의 내부 분배 상태는 직접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간계층의 변화를 놓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10분위분배율과 5분위배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값의 방향이 반대이다. 10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하고, 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점을 바꿔 읽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배지표는 먼저 분자에 누구의 소득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하위계층 소득이 분자에 들어가면 값이 클수록 평등 쪽이고, 상위계층 소득이 분자에 들어가면 값이 클수록 불평등 쪽이다.

암기 포인트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 대 상위 20이므로 클수록 평등이고, 5분위배율은 상위 20 대 하위 20이므로 클수록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10.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static) 모형이다.

③ 저축률과 투자율을 높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④ 지속적인 기술진보에 의해서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체감, 동태적 축적 과정, 저축률 상승의 수준효과, 기술진보의 지속성장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핵심 개념

솔로우 성장모형은 자본축적과 인구증가, 기술진보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추적하는 신고전파 성장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자본에 한계생산체감이 작용하므로 자본만 계속 늘려서는 1인당 소득이 영구히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못한다. 저축률 상승은 정상상태의 1인당 소득수준을 높이는 수준효과를 내고, 지속적인 기술진보는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은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소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정태적(static) 모형"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은 저축, 투자, 감가상각, 인구증가에 따라 경제가 정상상태로 수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동태적 모형이다. 올바르게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동태적 성장모형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이다. 저축률과 투자율이 높아지면 과도기에는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정상상태 수준에 도달할 뿐 1인당 성장률이 영구히 높아지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저축률과 투자율 상승은 1인당 소득수준을 높이지만 지속적 성장 자체의 원천은 아니다.
④ O: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외생적인 지속적 기술진보가 있을 때 1인당 소득이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장기 지속성장은 자본축적만이 아니라 기술진보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저축률 상승과 기술진보를 둘 다 "성장을 높이는 요인"으로만 외우면 ③과 ④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수준효과와 지속성장효과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또한 성장모형인데도 ②처럼 정태적 모형이라고 바꿔 놓거나, ①처럼 자본체감을 부정하는 표현도 자주 출제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관련 선지는 먼저 자본에 한계생산체감이 있는지,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동태모형인지, 저축률 변화가 수준만 바꾸는지 성장률까지 영구히 바꾸는지, 장기 1인당 지속성장의 원천이 기술진보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는 자본체감이 있고 동태모형이며 저축은 수준효과, 기술진보는 지속성장효과를 만든다.

NoteBase

문 1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이다.

② 정부가 제품의 수출을 전제로 하여 그 제품의 원료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③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정해 놓고 그 이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④ 곡물, 무기, 원유 등 중요한 물자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입할당제와 자율수출규제, 수출연계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입할당제는 일정 기간에 들여올 수 있는 수입물량의 상한을 정부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자율수출규제는 수입국의 압력 아래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국영무역은 곡물·원유 같은 중요 물자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출입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수입할당제가 아니라 자율수출규제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수입국 정부가 수입 가능한 최대수량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제품의 수출을 전제로 그 제품의 원료 수입을 허가'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수입 총량 상한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출실적과 연계해 원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수입할당제는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 가능한 총량 자체를 제한한다.
③ O.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정해 놓고 그 이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한다는 설명은 수입할당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입'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수입할당제가 아니라 국영무역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수입할당제는 정부 독점 여부가 아니라 수입물량 상한 설정이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수출국이 자율적으로'와 ④의 '정부가 독점적으로'가 대표적인 함정이다. 수입할당제는 누가 수입하느냐보다 얼마까지 수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주체를 바꿔 다른 제도를 섞어 놓으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제도 문제는 먼저 제한 대상이 수출인지 수입인지, 다음으로 제한 방식이 물량 상한인지 정부 독점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최대수량을 정한다'가 보이면 수입할당제를 우선 떠올릴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수입할당제는 수입물량 상한, 자율수출규제는 수출국 자율억제, 국영무역은 정부 독점이다.

NoteBase

문 12. 루카스(Lucas)의 불완전정보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대되지 않은 통화정책은 단기 총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장기 총생산에 큰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합리적 기대와 신축적 물가를 가정하므로 단기에도 총공급곡선은 항상 수직이 된다.

④ 단기에 경제주체들은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 증가와 같은 실물충격(real shock)과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는 명목충격(nominal shock)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루카스의 불완전정보모형에서 예상된 통화정책과 예상되지 않은 통화정책의 효과, 그리고 실물충격과 명목충격의 구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루카스의 불완전정보모형은 경제주체가 자신의 가격은 잘 보지만 전체 물가수준은 즉시 알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가격 상승이 일반물가 상승인지 상대가격 상승인지 혼동할 수 있어 예상되지 않은 명목충격이 단기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상된 통화정책은 이미 임금과 가격에 반영되므로 실질산출에 효과가 없고, 장기 총생산도 통화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루카스 모형에서는 예상되지 않은 통화정책이 경제주체에게 상대가격 상승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장기 총생산에 큰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통화정책은 장기 총생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하며, 장기에는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단기에도 총공급곡선은 항상 수직이 된다'는 표현이다. 루카스의 불완전정보모형에서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으며, 수직인 것은 장기 총공급곡선이다.
④ X: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다. 첫째, 용어가 뒤바뀌어 있다.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 증가는 일반물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명목충격(nominal shock)이고, 상대가격 변화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는 실물충격(real shock)인데, 선지는 통화량 증가를 실물충격으로, 상대가격 변화를 명목충격으로 뒤집어 표기하였다. 둘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표현도 틀렸다. 이 모형의 핵심은 경제주체가 자신의 가격 변화를 보고 그것이 상대가격 변화인지 일반물가 상승인지 단기에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합리적 기대를 보면 곧바로 정책무력성과 수직 총공급만 떠올리기 쉬운 점을 노린 선지이다. 그러나 루카스 모형은 정보가 불완전하므로 단기에는 예상되지 않은 명목충격에 반응할 수 있다. ④도 '합리적 기대'를 '완전한 정보'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루카스 불완전정보모형이 나오면 먼저 경제주체가 전체 물가와 상대가격을 완전히 구분하는지 본다. 구분하지 못하면 예상되지 않은 통화정책은 단기 실질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예상된 통화정책과 장기 산출효과를 묻는 선지는 틀릴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루카스 모형은 '예상 못한 통화는 단기 효과, 예상한 통화와 장기 산출은 무효'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계나 기업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지출을 늘리면 실업이 증가한다.

② 가계나 기업이 경제 여건이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저축을 늘리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

③ 가계나 기업이 경제 여건이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지출을 줄이게 되면 경제가 침체된다.

④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지만, 케인즈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약의 역설이 왜 케인즈 모형에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약의 역설은 개별 경제주체에게는 저축 확대가 합리적이어도, 모두가 동시에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국민소득과 생산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케인즈 모형은 총수요 부족 때문에 이런 역설을 설명하고, 고전학파 모형은 가격과 이자율 조정으로 저축이 투자로 연결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X. 미래를 낙관해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해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는 방향이 일반적이다. 틀린 표현은 "실업이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실업이 감소하거나 고용이 증가한다"이다.
2번: X. 경제 여건 악화를 예상해 모두가 저축을 늘리면 현재 소비지출이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므로 경제 전체에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틀린 표현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이다. 올바르게는 "경제 전체의 소득과 생산을 줄여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이다.
3번: O. 경제 여건 악화를 예상해 지출을 줄이면 개별적으로는 저축을 늘리려는 행동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생산과 소득이 줄고 경제가 침체된다. 이것이 절약의 역설의 핵심이다.
4번: X. 절약의 역설은 고전학파가 아니라 케인즈 모형에서 설명되는 현상이다.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저축 증가가 이자율 조정을 통해 투자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지만, 케인즈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케인즈 모형에서는 성립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개별 합리성과 거시 결과를 같은 차원에서 보면 2번에 흔들리기 쉽다. 절약의 역설은 개인에게 좋은 저축 행동이 경제 전체에는 총수요 감소로 나타난다는 점이 함정이다. 4번은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방향을 뒤집어 놓은 전형적인 비교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축 증가나 지출 감소가 보이면 먼저 개별 판단인지 거시 총수요 효과인지를 구분한다. 이어서 총수요가 줄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케인즈식 설명인지, 이자율 조정으로 저축과 투자가 연결되는 고전학파 설명인지를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절약의 역설은 개인의 절약은 미덕이지만 모두의 절약은 총수요 감소로 경기침체가 된다는 명제이다.

NoteBase

문 14.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책 시행 전후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없으며, 암시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정책의 시행으로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③ 정책의 시행으로 시장 거래 가격은 상승한다.

④ 정책의 시행으로 시장 거래량이 규제 가격에서의 공급량보다 적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될 때 가격, 거래량,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높게 묶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이다. 이때 거래량은 규제가격에서의 수요량으로 결정되고, 공급량이 더 커져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가격은 오르지만 소비자잉여는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 때문에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격하한제는 대체로 생산자나 공급자의 수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이다. 가격하한제가 실효성을 가지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③ O: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강제하므로 시장 거래 가격은 상승한다.
④ O: 가격하한제 아래 실제 거래량은 규제가격에서의 수요량이며, 이는 같은 가격에서의 공급량보다 작다. 따라서 초과공급이 남는다.

오답 포인트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가 유리해진다는 점만 보고 전체 잉여까지 함께 늘어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공급자 보호'와 '소비자잉여 증가'를 연결해 오판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하한제가 실효성이 있으면 먼저 균형가격보다 높은 규제가격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다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수요량 기준으로 감소, 공급량은 더 커져 초과공급 발생, 소비자잉여는 감소의 흐름으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실효적 가격하한제는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초과공급 발생, 소비자잉여 감소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5. 엥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엥겔곡선의 형태는 가격탄력성의 크기를 보여 준다.

② 엥겔곡선의 기울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③ 엥겔곡선은 재화의 소비량과 소비자의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소득변화에 따른 두 재화의 상대적 수량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엥겔곡선보다는 소득확장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엥겔곡선이 보여 주는 관계와 소득확장경로가 보여 주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엥겔곡선은 한 재화의 소비량과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며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을 본다.
소득확장경로는 두 재화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득 변화에 따라 선택되는 최적 소비묶음의 경로를 나타낸다.
엥겔곡선의 형태와 기울기에서 읽는 핵심은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소득탄력성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엥겔곡선의 형태가 보여 주는 것은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소득탄력성이다.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은 수요곡선에서 보며, 엥겔곡선은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가격탄력성'이며, 올바르게는 '소득탄력성의 크기와 방향'이다.
2번: O. 정상재이면 소득이 늘수록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엥겔곡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된다. 열등재이면 소득이 늘수록 소비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 있다.
3번: O. 엥겔곡선은 특정 재화의 소비량 또는 수요량과 소비자의 소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4번: O. 두 재화의 상대적 수량이 소득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면 각 소득 수준에서의 최적 소비조합을 연결한 소득확장경로가 더 적절하다. 엥겔곡선은 재화별로 따로 그려지는 일변수 관계라서 두 재화의 조합 변화를 직접 보여 주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엥겔곡선과 수요곡선을 혼동하면 1번을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곡선의 형태가 무엇의 탄력성을 보여 주는가'를 묻는 순간 가격이 변하는지, 소득이 변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이 놓이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소득과 한 재화의 소비량 관계이면 엔겔곡선이고, 소득 변화에 따른 두 재화의 최적 소비묶음이면 소득확장경로이다. 따라서 엔겔곡선에서는 소득탄력성을, 수요곡선에서는 가격탄력성을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엔겔곡선은 한 재화와 소득, 소득확장경로는 두 재화의 최적 조합, 엔겔곡선의 핵심 탄력성은 소득탄력성이다.

NoteBase

문 16. 어느 경제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서로 대체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정상재라고 가정한다)

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소고기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②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③ 소고기의 돼지고기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④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체재의 교차가격효과와 교차탄력성의 부호, 그리고 자기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재: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로 소비가 이동하는 관계이다. 키워드는 서로 대체, 반대편 재화 가격 변화에 같은 방향으로 반응이다.
교차탄력성: 한 재화의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대체재이면 교차탄력성은 양(+)이다.
수요와 수요량: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고, 자기 가격 변화는 수요곡선 위의 점 이동으로 수요량을 바꾼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대체재이면 소고기 가격이 변할 때 돼지고기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로 소비가 이동하므로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한다.

② O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소고기가 상대적으로 싸져서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더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이다. 대체재의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이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므로 양(+)의 값을 갖는다. 올바르게는 '소고기의 돼지고기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이다.

④ O
돼지고기 자체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곡선 위에서 이동이 일어나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는 대체재 관계가 아니라 자기 가격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수요법칙의 결과이다.

오답 포인트

대체재와 보완재의 교차탄력성 부호를 뒤집어 외우면 ③에 걸린다. 또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가 만드는 '수요의 이동'과 자기 가격 변화가 만드는 '수요량의 변화'를 섞으면 ②와 ④를 함께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재화가 대체재이면 한쪽 가격 상승은 다른 쪽 수요 증가, 한쪽 가격 하락은 다른 쪽 수요 감소로 본다. 따라서 대체재의 교차탄력성은 양(+)이고, 자기 재화 가격 하락은 그 재화의 수요량 증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체재는 상대 재화 가격과 같은 방향, 교차탄력성은 양(+), 자기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이다.

NoteBase

문 17.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의 총비용이 $TC = Q^3 - 18Q^2 + 100Q$일 때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단, Q는 어느 기업의 생산량이다)

① 19

② 20

③ 21

④ 22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가격이 최소 평균비용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총비용 $TC = Q^3 - 18Q^2 + 100Q$이다. 구해야 할 값은 장기균형 가격이다.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P = MC$이면서 경제적 이윤이 0이므로 $P = AC$이고, 결국 $P = \min AC$가 된다.

사용할 공식

평균비용은 $AC = TC/Q$, 한계비용은 $MC = dTC/dQ$이다. 장기균형 가격은 최소 평균비용과 같으므로 AC를 구해 그 최소값을 찾는다.

계산 과정

1. 평균비용을 구하면 $AC = \frac{TC}{Q} = Q^2 - 18Q + 100$이다.
2. 최소 평균비용을 찾기 위해 미분하면 $\frac{dAC}{dQ} = 2Q - 18$이므로 $2Q - 18 = 0$에서 $Q = 9$이다.
3. 이때 평균비용은 $AC(9) = 9^2 - 18 \cdot 9 + 100 = 81 - 162 + 100 = 19$이다.
4. 한계비용은 $MC = \frac{dTC}{dQ} = 3Q^2 - 36Q + 100$이고 $Q = 9$에서 $MC(9) = 243 - 324 + 100 = 19$이므로 $MC = AC = P = 19$가 성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장기균형 가격은 최소 평균비용과 같고, AC의 최소값이 19이므로 옳다. $Q=9$에서 MC도 19가 되어 장기균형 조건과 일치한다.

② X
- 20은 최소 평균비용이 아니다. 실제로 $AC(8)=20$, $AC(10)=20$으로 최소점 $Q=9$의 주변값일 뿐 장기균형 가격은 아니다.
- \"장기균형 가격은 20이다\" → \"장기균형 가격은 19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21은 AC의 최소값보다 큰 값이므로 영이윤 장기균형 가격이 될 수 없다.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가격이 최소 평균비용보다 크면 초과이윤이 생겨 신규 진입이 일어난다.
- \"장기균형 가격은 21이다\" → \"장기균형 가격은 19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22도 최소 평균비용보다 큰 값이므로 장기균형 가격이 아니다. 이 값이면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얻으므로 장기균형이 아니라 진입이 계속되는 상태가 된다.
- \"장기균형 가격은 22이다\" → \"장기균형 가격은 19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 $P=MC$만 보고 멈추거나, AC의 최소값을 찾지 않으면 오답이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장기균형\"이라는 표현을 놓치고 임의의 생산량에서 비용을 읽는 실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장기균형 가격 문제는 먼저 $AC=TC/Q$를 만든 뒤 그 최소값을 구하고, 그 점에서 $MC=AC=P$가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장기균형은 $P=\min AC=MC$이다.

NoteBase

문 18. 어느 국가의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인구수가 다음과 같다. 2004년도 대비 2024년도 1인당 실질 GDP 증가량은?

연도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인구수
2004	100조 원	200	1,000만 명
2024	360조 원	300	1,200만 명

① 불변

② 100만 원 증가

③ 300만 원 증가

④ 500만 원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 GDP를 구한 뒤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실질 GDP 증가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04년 명목 GDP 100조 원, GDP 디플레이터 200, 인구수 1,000만 명이다.
주어진 값: 2024년 명목 GDP 360조 원, GDP 디플레이터 300, 인구수 1,200만 명이다.
구해야 할 값: 2004년 대비 2024년 1인당 실질 GDP 증가량이다.
주의할 조건: 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실질 GDP로 바꾼 뒤 인구수로 나누어야 하며, 총액 증가와 1인당 증가를 혼동하면 안 된다.

사용할 공식

실질 GDP는 명목 GDP ÷ GDP 디플레이터 × 100으로 구한다.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 ÷ 인구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물가변동을 제거한 1인당 생산 수준의 변화를 묻고 있으므로 먼저 디플레이터로 실질 GDP를 환산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04년 실질 GDP는 100조 ÷ 200 × 100 = 50조 원이다.
2. 2024년 실질 GDP는 360조 ÷ 300 × 100 = 120조 원이다.
3. 2004년 1인당 실질 GDP는 50조 ÷ 1,000만 = 500만 원이다.
4. 2024년 1인당 실질 GDP는 120조 ÷ 1,200만 = 1,000만 원이다.
5. 증가량은 1,000만 - 500만 = 500만 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불변이 아니다. 1인당 실질 GDP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으므로 증가량은 500만 원이다. 틀린 표현은 '불변'이며, 올바르게는 '500만 원 증가'이다.
② X: 100만 원 증가는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실질 GDP 환산이나 인구수 나누기 중 한 단계를 잘못 처리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100만 원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500만 원 증가'이다.
③ X: 300만 원 증가도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총실질 GDP 증가만 대충 비교하거나 인구 변화를 끝까지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오답에 끌릴 수 있다. 틀린 표현은 '300만 원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500만 원 증가'이다.
④ O: 2004년 1인당 실질 GDP는 500만 원, 2024년은 1,000만 원이므로 증가량은 500만 원이다.

오답 포인트

명목 GDP가 1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늘었다는 숫자만 보고 바로 1인당 증가를 추정하면 틀리기 쉽다. 디플레이터로 물가를 제거하지 않거나 인구가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늘어난 점을 빠뜨리면 ②나 ③ 같은 오답으로 흐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인당 실질값 문제는 '명목값을 실질값으로 환산한다 -> 인구수로 나눈다 -> 두 시점 차이를 구한다'의 순서로 판단한다. 총액 비교와 1인당 비교를 끝까지 분리하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1인당 실질 GDP는 '명목 GDP를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뒤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두 소비자 A와 B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X재에 대한 소비자 A와 소비자 B의 수요함수 및 시장 공급함수를 나타낸다. X재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_A, Q_B, P는 각각 소비자 A의 수요량, 소비자 B의 수요량, 가격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A의 수요함수: $Q_A = -P + 4$
B의 수요함수: $Q_B = -\frac{1}{2}P + 5$
시장 공급함수: $Q = P + 4$

① 균형시장가격은 4이다.

② 균형시장가격에서 A의 X재 수요량은 2이다.

③ 균형시장가격에서 B의 X재 수요량은 4이다.

④ 균형시장가격에서 A의 X재 수요가 B의 X재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별수요의 수평합으로 시장수요를 구하고, 이를 공급과 같게 두어 균형가격을 구한 뒤 각 소비자의 점탄력성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소비자 A의 수요함수는 $Q_A = -P + 4$, 소비자 B의 수요함수는 $Q_B = -\frac{1}{2}P + 5$, 시장 공급함수는 $Q = P + 4$이다.
구해야 할 값: 균형시장가격, 균형에서의 각 소비자 수요량, 균형에서의 가격탄력성이다.
주의할 조건: 시장수요는 개별수요를 수평합해야 하고,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시장수요는 $Q_D = Q_A + Q_B$이고, 균형은 $Q_D = Q_S$에서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dQ}{dP} \cdot \frac{P}{Q}|$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두 소비자의 수요를 합친 시장수요와 공급의 교점, 그리고 균형점에서의 탄력성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시장수요를 수평합하면 $Q_D = (-P + 4) + (-\frac{1}{2}P + 5) = 9 - \frac{3}{2}P$이다.
2. 균형조건 $Q_D = Q_S$를 대입하면 $9 - \frac{3}{2}P = P + 4$이므로 $5 = \frac{5}{2}P$, 따라서 균형시장가격은 $P = 2$이다.
3. 균형에서 $Q_A = -2 + 4 = 2$, $Q_B = -1 + 5 = 4$이다.
4. 탄력성은 A가 $|-1 \cdot \frac{2}{2}| = 1$, B가 $|-\frac{1}{2} \cdot \frac{2}{4}| = \frac{1}{4}$이므로 A의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균형시장가격은 $P=2$이다. 틀린 표현은 '4'이고, 올바르게는 '균형시장가격은 2이다'가 된다.
② O. 균형시장가격 $P=2$를 A의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_A=-2+4=2$이므로 맞다.
③ O. 균형시장가격 $P=2$를 B의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_B=-\frac{1}{2}\cdot 2+5=4$이므로 맞다.
④ O. 균형에서 A의 가격탄력성은 1, B의 가격탄력성은 $\frac{1}{4}$이다. 절댓값 기준으로 A의 수요가 B의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시장수요를 합치지 않거나 균형식을 잘못 세우면 나오는 오답이다. 또 ④는 기울기만 보고 탄력성을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탄력성은 기울기만이 아니라 $\frac{P}{Q}$까지 함께 반영한 점탄력성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소비자의 시장문제는 먼저 개별수요를 수평합해 시장수요를 만든 다음, 공급과 같게 두어 균형가격을 구한다. 그 뒤 각 개인의 균형수요량을 다시 대입하고, 탄력성은 반드시 $\left|\frac{dQ}{dP}\cdot\frac{P}{Q}\right|$로 따로 계산해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수요는 수평합, 균형은 수요와 공급의 교점, 탄력성 비교는 기울기만이 아니라 $\frac{P}{Q}$까지 본다.

NoteBase

문 20. 한 독점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두 개의 시장 A, B에 각각 판매한다. 독점기업이 두 시장에 가격을 차별화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 A, B 간에 재판매는 불가능할 때, 두 시장에서 판매량의 합은 얼마인가? (단, Q_A, Q_B는 각각 A 시장과 B 시장에서 상품의 수량이며, P_A, P_B는 각각 A 시장과 B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을 나타낸다)

◯ 시장 A의 수요곡선: $P_A = 100 - Q_A$
◯ 시장 B의 수요곡선: $P_B = 80 - 2Q_B$
◯ 총비용: $TC = 20(Q_A + Q_B)$

① 40
② 45
③ 50
④ 5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3급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이 각 시장에서 $MR = MC$를 맞춰 최적 판매량을 구한 뒤 두 시장의 수량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시장 A의 수요곡선 $P_A = 100 - Q_A$, 시장 B의 수요곡선 $P_B = 80 - 2Q_B$, 총비용 $TC = 20(Q_A + Q_B)$이다. 구해야 할 값은 총판매량 $Q_A + Q_B$이다.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두 시장을 분리해서 각각 이윤극대화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가격차별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각 시장별로 $MR_A = MC$, $MR_B = MC$이다. 한계비용은 총비용식에서 $MC = 20$으로 일정하다. 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전체 수요를 합치지 않고 각 시장의 총수입과 한계수입을 따로 구해야 한다.

계산 과정

시장 A에서는 $TR_A = P_A Q_A = (100 - Q_A)Q_A = 100Q_A - Q_A^2$ 이므로 $MR_A = 100 - 2Q_A$ 이다. $MR_A = MC$를 적용하면 $100 - 2Q_A = 20$이어서 $Q_A = 40$이다. 시장 B에서는 $TR_B = P_B Q_B = (80 - 2Q_B)Q_B = 80Q_B - 2Q_B^2$ 이므로 $MR_B = 80 - 4Q_B$ 이다. $MR_B = MC$를 적용하면 $80 - 4Q_B = 20$이어서 $Q_B = 15$이다. 따라서 총판매량은 $Q_A + Q_B = 40 + 15 = 5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40은 시장 A의 최적수량 $Q_A = 40$만 반영한 값이다. 시장 B에서도 $Q_B = 15$를 판매해야 이윤이 극대화된다. 틀린 진술은 "총판매량이 4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총판매량은 55이다"이다.

② X
45가 되려면 시장 A의 최적수량 40을 유지할 때 시장 B 수량이 5여야 한다. 그러나 $Q_B = 5$이면 $MR_B = 80 - 4 \times 5 = 60$으로 $MC = 20$보다 커서 판매를 더 늘리는 편이 이윤을 높인다. 틀린 진술은 "총판매량이 45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시장 B는 15까지 판매하므로 총판매량은 55이다"이다.

③ X
50이 되려면 시장 A의 최적수량 40을 유지할 때 시장 B 수량이 10이어야 한다. 그러나 $Q_B = 10$이면 $MR_B = 80 - 4 \times 10 = 40$으로 여전히 $MC = 20$보다 커서 이윤극대화 수량이 아니다. 틀린 진술은 "총판매량이 5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시장 B의 최적수량은 15이므로 총판매량은 55이다"이다.

④ O
시장 A는 $MR_A = 100 - 2Q_A = 20$에서 $Q_A = 40$, 시장 B는 $MR_B = 80 - 4Q_B = 20$에서 $Q_B = 15$가 된다. 따라서 총판매량은 $40 + 15 = 55$이므로 ④가 옳다.

오답 포인트

가격차별 독점에서는 각 시장의 수요곡선으로부터 한계수입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빼먹고 수요곡선 자체를 MC와 같게 두거나 한 시장의 수량만 적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장 B는 기울기가 2이므로 한계수입의 기울기는 4가 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차별 독점 계산형은 시장별로 TR과 MR을 따로 구한 뒤 각 시장에서 $MR = MC$를 맞추고, 마지막에 수량을 합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숫자 선지가 나오면 역으로 해당 총판매량이 각 시장의 $MR = MC$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바로 점검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제3급 가격차별 독점은 각 시장별 $MR = MC$, 마지막에 Q를 합산한다.

NoteBase